

‘코로나’ 뚫고…손흥민이 돌아왔다

자가격리 끝내고 오늘부터 훈련장 복귀
내달 EPL 재개 앞두고 컨디션 조절 박차

‘손’ 빠진 뒤 6G 무승…토트넘 재기 여부 관심

손흥민(28·토트넘)이 긴 기다림 끝에 팀 훈련에 복귀할 예정이다.

영국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14일(한국시간) “2주 간 자가 격리기간 시간을 보낸 손흥민이 월요일(16일) 토트넘 훈련장에 돌아온다. 토트넘은 14일부터 정상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6일 애스턴빌라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019~2020 정규리그 26라운드 경

기 도중 오른쪽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국내로 들어와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영국으로 건너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2주간 자가 격리 시간을 가졌다. 언론 보도대로 자가 격리 기간을 보낸 그는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손흥민은 팀에 복귀하더라도 곧바로 본 훈련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아에 이어 유럽 전역에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EPL은 4월 3일까지 일정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기 복귀를 타진할 이유도 없다. EPL이 예정대로 4월 초 재개

된다는 가정 아래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일단 토트넘은 일정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손흥민이 빠진 이후 치른 6경기(EPL 3경기·챔피언스리그 2경기·FA컵 1경기)에서 단 1승도 올리지 못한 채 2무4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FA컵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 복귀와 함께 팀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셈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손흥민

스포츠동아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sportsdonga.com 10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예정된 스포츠 최대 이벤트인 2020 도쿄올림픽의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상 개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연기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쿄 | AP뉴시스

트럼프·바흐·일본여론 “연기가 대안” WHO “팬데믹”…도쿄올림픽 연기·취소론 뜨는데

일본 정부는 왜 ‘올림픽 강행’을 밀어붙일까

프로·아마 등 전세계 스포츠 올스톱
연기팬 중계권·티켓·보험금 등 진통
선수들 불참 가능성…1~2년 연기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 2020 도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 스포츠는 올 스톱 상태다. 현재 진행 중인 대회는 물론, 향후 예정된 대회도 대부분 중단됐거나 무기한 연기됐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받는 무대는 하계올림픽이다.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 도쿄 일대에서 펼쳐

질 올림픽은 지금의 상황이 이어지면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 스포츠계의 시선이다.

물론 일본은 올림픽 의지를 숨기지 않는다. 아베 신조 총리는 14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긴밀히 협의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분위기는 일본 정부의 바람처럼 우호적이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올림픽은) 1년 연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중 없는 올림픽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월까지도 “올림픽 개최를 응원한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회의적인 코멘트도 등장했다. 그는 최근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보건기구(WHO)가 올림픽 중지를 요구하

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물음에 “WHO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WHO는 12일 ‘글로벌 팬데믹(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한 상태로 향후 추이에 따라 올림픽 연기나 취소 등을 제안할 수 있다. IOC도 각국 선수단과 관중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올림픽을 강행하는 무리수는 두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은 초비상이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긴급 회담을 갖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림픽의 연기와 취소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를 굳이 끝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그리스의 올림픽 성화 봉송도 전격 취소됐다.

일본 내 여론도 부정에 가깝다. 다만 ‘취소’가 아닌, ‘연기’에 무게를 실는다. 올 하반기가 어렵다면

1~2년 스케줄을 미루자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재일동포 출신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은 15일 “위험한 일은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1년 연기하는 것이 좋다”며 1년 연기를 제안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현지 언론에선 “총리실이 이미 올림픽 취소·연기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일단 IOC는 최대한 시간을 두고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아직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지나치게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부담이다. 유치 과정도 매끄럽지 않은데다 약령 높은 열도의 무더위, 여전히 위험수위를 오가는 방사능 유출 우려까지 도쿄올림픽은 이래저래 말 많고 탈 많은 대회로 치닫고 있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어서와, 한국이 더 안전해”…KBO리그 외인들 U턴 움직임 ▶ 3면

한국배드민턴 날았다…세계 최고 권위 ‘전영오픈’서 동메달 2개 ▶ 8면

Returnup 리턴업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미네랄2종 (아연·구리)
비타민4종 (A/C/E/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사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식약처 1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330-9988